자크 모노 《우연과 필연》

'왕국' 과 '암흑의 나락' 나의 선택이 삶의 가치를 만든다

자크 모노는 1965년 생물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분자생물학자이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생명과학이 아니라 자연철학이다. 상당 수준의 과학적, 철학적 지식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수준 높은 책인데 1970년에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수십만 부가 판매됐다. 이것은 프랑스 국민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일례다.

글_박이문

생명의 기원, 우연과 탈선으로 발생한 변이의 결과

이 책은 철학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수수께끼인 생명의 기원을 극미한 물질의 우연적 조합에서 찾는다. 인류를 정점에 둔 모든 종의 생물체 출현을 최초 원시적 유전자 차원인 돌연변이의 영속적 고리에서 찾는다. 수많은 종의 생물체들 출현은 초월적 창조자의 의도와 의지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유전자 차원 이하의 양자학적 미세한 입자들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단 하나, 단 한 번의 탈선으로 발생한 변이의 결과라는 것이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가 미립자 차원에서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종의 생물체 존재도 같은 결과이다.

모노는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놀라운 지적, 기술적, 예술적 창조물의 총체로서 문명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자유의지도 한결같이 물질 현상으로 환원하고 동일한 미립자들의 다른 양상으로써 동일한 인과법칙으로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모노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마르크스나 월슨 및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물론적이며, 그 유물론적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물질로 환원되어 인과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러나 유물론의 근거는 데모크리토스나 마르크스, 붓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경우처럼 막연한 사념이나 직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분자생물학 연구와 모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과법칙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의 성격에 대한 입장과도 다르다. 모든 현상의 작동을 설명하는 인과법칙의 필연성 자체가 우연성의 결과라는 주장, 즉 자연의 필연성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역설적 명제는 철학적으로 독창적인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물활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

세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총체적 방식을 세계관이라 부르며, 그러한 세계관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세계관은 크게 물활론과 유물론이라는 두 종류로 구별되고, 종교와 과학이 각각 전자와 후자를 대표한다.

물활론은 태곳적부터 근대과학이 성립되기까지 인간의 생활에 깊이 관여해 왔고, 첨단과학이 꽃 피우고 있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의 인류가 아직도 무의식 중에 따르고 있는 세계관이다. 유물론은 17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지배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 과학기술문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세계관이다.

두 개의 세계관은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만이 맞는다. 종교는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살아 있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각자 자신의 영혼을 갖는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그것의 모든 변화는 각기 그것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혼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믿는다. 반면 과학은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의 모든 현상이 무한한 수의 미립자들 간의 인과적 관계의 작동으로 본다.

물활론적 · 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 그 전체의 차원에서 보거나 개별적 차원에서 보거나 간에 - 어떤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의미' 를 갖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 속에서 고독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반면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 인간이나 우주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

영혼도, 목적도, 감정도, 의미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물질로서의 우주는 한없이 삭막하고, 기계처럼 돌아간다. 그곳에서 인간은 허전하며 고독하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

게 살 것인가라는 어려운 실존적 선택은 오로지 그 자신의 결정에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세계관, 더 정확히 말해서 물활론적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매력적이다. 태고의 옛날부터 인류는 물활론을 믿어왔다. 그것은 계몽시대를 대변하는 헤겔의 관념론적 형이상학,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규탄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첨단과학으로 지적 · 물질적 풍요를 가능케 한 과학자나 기술자, 그 열매를 향유하는 현대도시인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수가 아직도 물활론적 세계관 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모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차갑고 삭막해서 심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학적 세계관의 본질에서 찾는다.

물활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환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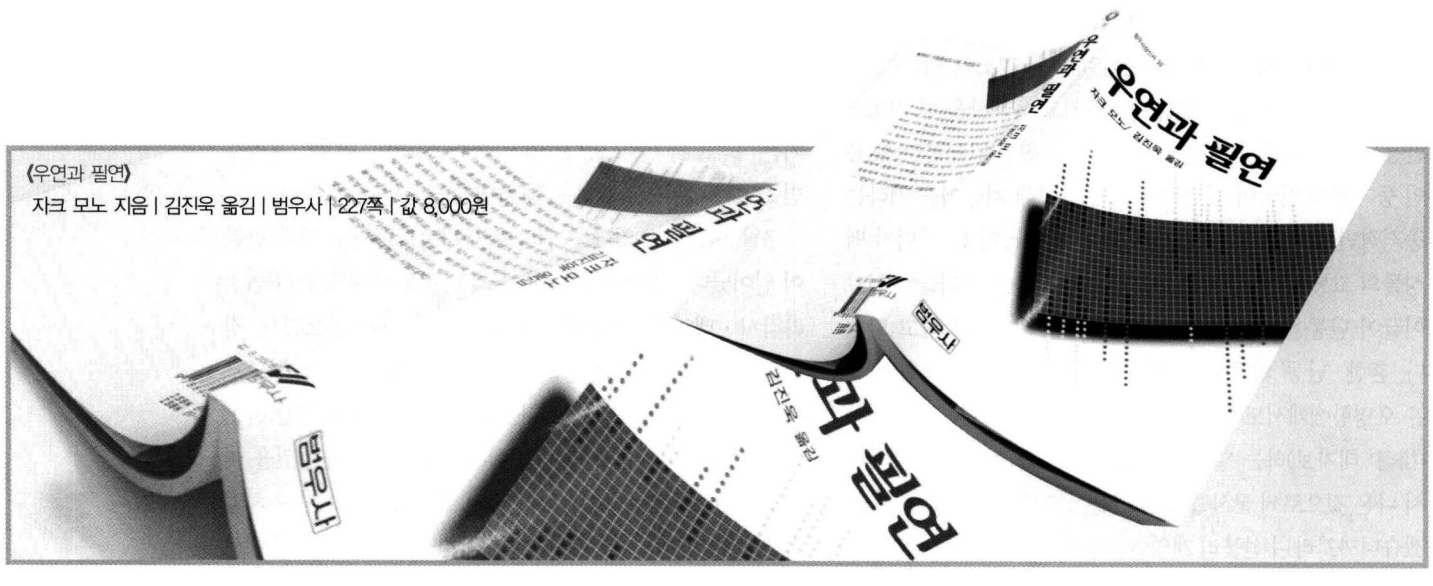
그는 아무리 심정적으로 아프더라도 더 이상 물활론적, 종교적 세계관에 매달리지 말고 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과학기술문명이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폭발적 소비, 핵무기 확산, 환경오염 등 자연과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인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과학에만 의존할 수 있으며, 과학만이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발견의 냉정한 방법이다. 물활론적 세계관은 세계의 객관적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 일종의 환각이다. 오늘의 문명사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번영하여 보다 나은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물활론적 세계관에 매달려있는 한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과 그 차원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초월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른 영적, 인격적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목적, 가치, 의미는 밖으로부터 부여되어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고단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부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물활론적, 종교적, 초월적 세계관은 진리가 아니라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할 환각이다.

이 책은 생명의 발생, 진화론, 과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자연과학적 책이기도 하지만 존재일반, 자유의지, 과학적 지식의 본질, 경험적 지식과 수학이나 논리 같은 선험적 · 관념적 존재 등에 관한 철학적 이론이기도 하다. 철학자로서의 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눈을 떴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와 인간, 우주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저자의 실존주의적 · 도덕적인 고백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명, 인간, 생명, 자연의 구원을 외치는 일종의 종교적 가르침이기도 하다. 말미의 다음과 같은 시적 표현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인간은 마침내 자기가 이전에 그 속에서 우연히 출현하였던 무관심하며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단지 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의무는 어느 곳에도 쓰여 있지 않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왕국'과 '암흑의 나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박이문 님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